

제52호(2013.3.22)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

김 성 우 노 호 영

1. 마늘 자급률 하락 배경	3
2. 국산 마늘과 중국산 마늘의 인과성 분석	6
3. 최근의 마늘 수요의 변화 동향	8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11

감수:	이용선 연구위원	02-3299-4320	yslee@krei.re.kr
내용 문의:	김성우 부연구위원	02-3299-4115	swootamu@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마늘은 국민의 기호 식품으로서 그동안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생산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연초부터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마늘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2002년에 92%에서 2011년에 77%로 하락함. 이는 마늘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지난 10년 동안 25%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냉동마늘을 중심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임. 또한 마늘 재배는 주산지와 정식 시기가 비슷한 양파로 대체되었는데, 양파에 비해 생산비는 많이 들고 부가가치가 적어 양파 재배면적이 2000~2011년에 연평균 3% 증가한 반면, 마늘의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에 연 6%씩 감소하였음.

국산 마늘의 품종 간 가격 인과성 분석 결과,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은 5% 유의 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산 난지형 마늘 가격과 수입 마늘과의 인과성 분석 결과, 마늘 수입량은 국산 난지형 마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국산 난지형 마늘 가격은 마늘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마늘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11kg에서 최근 8kg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마늘 소비량이 감소하면서도 업무용 소비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마늘 품종별 수요는 최근 한지형이 감소한 반면 난지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난지형 마늘 수요 중 남도 마늘에 대한 수요는 정체 내지 감소하였으나, 매운 맛이 덜한 대서마늘의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업무용 수요의 증가와 맛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변화가 난지형(대서종) 마늘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됨.

국산 마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아재배 및 기계화가 확대되어야 하며, 수확 후 건조시설 보급으로 완전 건조 후 저장함으로써 감모율을 낮춰야 함. 한지형 마늘의 경우 중국산 수입 영향이 거의 없어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하며, 난지형 마늘은 단위당 수확량이 많으나 생산비는 낮고, 수요도 증가하는 대서종 생산을 확대하여야 함. 최근 증가하는 업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1. 마늘 자급률 하락 배경

□ 마늘 자급률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

- 국내 마늘 자급률은 2002년 92%에서 2011년 77%로 빠르게 하락함
 - 마늘 공급량은 2002년에 43.4만 톤에서 2011년에는 38.4만 톤으로 연평균 1% 감소
 - 마늘 생산량은 2002년에 39.4만 톤에서 2011년에는 29.5만 톤으로 연평균 3%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0년, 2011년은 기상 악화에 따른 단수 감소로 생산량 크게 감소
 - 마늘 수입량은 2002년에 3.6만 톤에서 2011년에는 8.9만 톤으로 연평균 11% 증가

표 1. 마늘 공급 동향(연산 기준: 5월 ~ 익년 4월)

단위: 천 톤

연 산	2002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이월(A)	6.0	14.0	6.0	1.0	1.0	6.0	3.0	0.0
생산량(B)	394.5	378.8	374.9	347.5	375.4	357.2	271.5	295.0
수입량(C)	33.4 (7.7)	52.1 (11.7)	46.0 (10.8)	68.3 (16.4)	53.6 (12.5)	37.7 (9.4)	89.3 (24.5)	89.3 (23.2)
공급량(D=A+B+C)	433.9	444.9	426.9	416.8	430.0	400.9	363.8	384.3
자급률(%)	92.3	88.3	89.2	83.6	87.5	90.6	75.5	76.8

주: 1) 간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은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냉장마늘로 환산한 물량임.

2) ()는 공급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 마늘 생산이 감소한 이유는 냉동마늘 수입 증가와 양파로 생산이 대체되었기 때문

1) 냉동 마늘 중심으로 수입 증가

-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마늘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해제 후인 2003년부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신선마늘인 깎마늘과 통마늘은 관세(360%)가 높아 대부분 TRQ로 수입되며, 민간수입은 관세율이 낮은 냉동마늘(27%)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 마늘 수입 실적 (연산기준: 5월~익년 4월)

단위: 톤

연 산	2002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수입량(A)	33,411	52,105	45,981	68,252	53,451	37,354	89,194	89,337
통마늘	13,263	13,974	9,625	10,199	3,418	6,144	35,703	31,747
깎마늘	212	3,707	2,304	2,761	2,088	129	2,099	2,038
냉동마늘	14,114	23,871	24,558	43,185	32,956	24,840	46,501	49,220
초산조제마늘	5,473	7,806	5,293	9,019	6,581	6,121	4,075	4,272
건조마늘	349	2,747	4,201	3,088	8,408	120	816	2,060
TRQ수입량(B)	13,181	9,984	14,467	15,467	3,374	5,964	37,800	21,487
민간수입량 (C=A-B)	20,230	42,121	31,514	52,785	50,077	31,390	51,394	67,850

주: 1) 깎마늘, 냉동·초산조제마늘, 건조마늘은 신선마늘로 환산하였음.

2) TRQ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이며, 2010~2011년은 1만 2천 톤 증량하여
기준량이 2만 6,467톤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표 3. 중국산 통마늘, 냉동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연산기준: 5월~익년 4월)

단위: 원/kg

	2009		2010		2011	
	통마늘	냉동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중국산 마늘 수입가격	3,670	1,675	10,600	2,779	3,030	1,207
CIF 가격	1,114	1,172	1,985	1,793	810	648
통관 제 비용	2,556	503	8,615	986	2,220	559
중국산 국내 판매가능가격(A)	4,037	1,842	11,660	3,056	3,333	1,328
국산 통마늘 도매가격(B)	2,357		5,339		3,828	
A/B (%)	171.3	78.2	218.4	57.2	87.1	34.7

주: 1) 수입통관 제 비용에는 관세와 수입 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중국산 국내 판매가능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마진 10%를 적용하였음.

3) 국내산 도매가격은 난지형 통마늘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센터 해외모니터 조사치.

- 중국산 냉동마늘의 국내 판매가격은 국산 마늘 가격보다 낮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9~2010년 중국산 통마늘의 국내 판매가격이 국산 통마늘 가격보다 높아 민간 수입이 없었으나, 2011년에는 중국산 산지 마늘 가격 하락으로 중국산 통마늘 국내 판매가격이 국산의 87% 수준까지 하락하여 민간 수입이 1만여 톤으로 증가

2) 마늘보다 생산비가 낮은 양파로 생산 대체

- 마늘은 종구비 등을 포함한 생산비가 양파보다 높기 때문에 주산지에서도 재배 시기가 비슷한 양파를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노동 투입시간이 적고 노동생산성도 높은 양파의 재배를 늘려나가는 경향임
 - 국산 마늘 재배면적은 2000년에 4만 4,941ha에서 2011년 2만 4,035ha로 연평균 6% 감소하였으나, 마늘과 주산지와 정식시기가 비슷한 양파는 2000년에 1만 6,773ha에서 2011년에 22,976ha로 연평균 3% 증가
 - 마늘의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양파(100시간)보다 21시간 많은 121시간이나, 노동생산성가치는 10% 낮은 시간당 39,137원(양파: 43,283원)

표 4. 마늘, 양파 재배면적, 노동투입시간, 노동생산성가치, 생산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재배면적(ha)	마늘	44,941	31,766	28,594	26,986	28,416	26,323	22,414	24,035
	양파	16,773	16,737	15,315	17,751	15,392	18,514	22,113	22,976
단위당 수확량(kg/10a)	마늘	1,095	1,180	1,159	1,288	1,321	1,357	1,212	1,227
	양파	5,232	6,114	5,809	6,836	6,725	7,412	6,384	6,616
생산비(천원/10a)	마늘	1,226	1,423	1,475	1,535	1,678	1,676	1,811	2,295
	양파	921	1,048	1,103	1,186	1,286	1,372	1,422	1,509
노동투입시간(시간/10a)	마늘	144.9	135.0	134.0	134.5	130.5	124.8	128.5	121.3
	양파	135.4	107.5	107.7	111.7	105.4	106.0	103.5	99.9
노동생산성가치(원/시간)	마늘	12,935	17,913	18,870	21,111	18,098	25,701	50,183	39,137
	양파	20,574	33,856	47,365	27,356	60,307	49,798	63,296	43,283

주: 노동생산성가치(원/시간)는 노동생산성(kg/시간)×가격(원/kg)으로 추정하였음.

자료: 통계청.

2. 국산 마늘과 중국산 마늘의 인과성 분석

2.1. 국산 마늘의 품종 간 인과성

□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의 인과관계 적어

- 난지형 마늘 가격은 한지형 마늘의 60% 수준이지만, 한지형에 대한 난지형 가격 비율은 40~70%에서 크게 변동함

표 5.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의 연간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연 산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난지형(A)	1,546	1,924	2,150	2,319	2,139	2,407	5,574	4,533
한지형(B)	2,179	3,351	4,192	4,039	3,538	6,099	8,763	7,647
비중(A/B)(%)	70.9	57.4	51.3	57.4	60.5	39.5	63.6	59.3

주: 연산 기준으로 연산은 당해년 5월~익년 4월을 나타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난지형-한지형 도매가격 간의 인과관계를 그랜저검정(Granger causality tests)으로 분석한 결과, ‘난지형 가격은 한지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와 ‘한지형 가격은 난지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이 모두 채택되었음
 - 5% 유의수준에서 난지형 마늘 가격과 한지형 마늘 가격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산 마늘은 난지형과 한지형 간 대체관계가 성립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표 6. 난지형과 한지형의 도매가격 간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시차(Lags): 1			
귀무가설 (Null Hypothesis)	Obs.	F-Statistic	Prob.
난지형 가격은 한지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6	1.1276	0.2906
한지형 가격은 난지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990	0.2568

주: 2000~2011년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시차길이는 S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을 이용하여 시차(1)를 적용함.

2.2. 난지형 마늘 가격과 수입과의 인과성 분석

□ 난지형 국내 가격이 수입에 영향을 미쳐

- 난지형 마늘 가격과 수입 간의 인과관계를 그랜저검정(Granger causality tests)으로 분석한 결과, ‘수입량은 국산 난지형 마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으나, ‘국산 난지형 마늘 가격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음
 - 5% 유의수준에서 수입은 국산 난지형 마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국산 난지형 마늘 가격은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국내 난지형 도매가격과 수입량 간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시차(Lags): 1			
귀무가설 (Null Hypothesis)	Obs.	F-Statistic	Prob.
수입량은 국산 난지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7	0.1764	0.6754
국산 난지형 가격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1676	0.0052

주: 2003년~2011년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시차길이는 S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을 이용하여 시차(1)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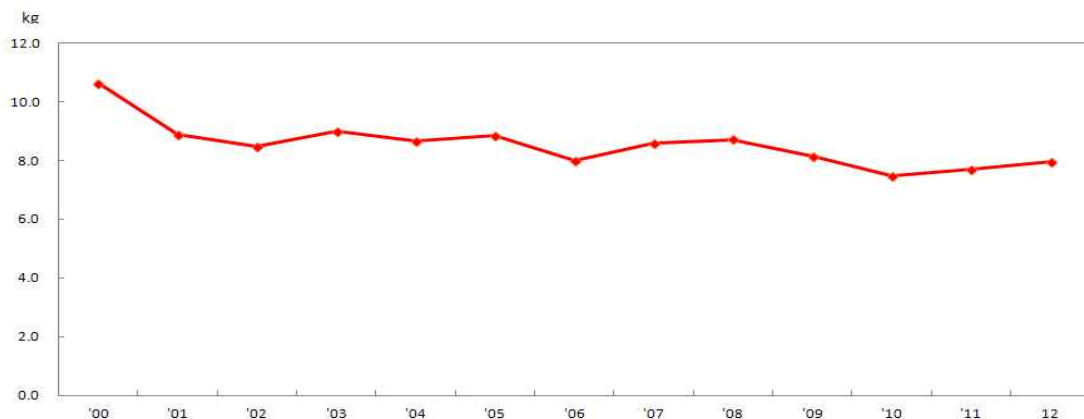
- 이는 국산 난지형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국산 난지형 마늘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수입은 감소하며, 반면 국산 난지형 생산량 감소로 국산 난지형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입 수요 증가로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국산 난지형 마늘 생산량에 따라 수입의 증감이 결정되나, 반대로 수입의 증감은 국산 난지형 마늘 가격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산 난지형 마늘과 중국산 수입 마늘과는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 간 인과성이 검출되지 않는 반면, 국산 난지형 마늘과 수입 마늘 간 인과성이 검출된 것은 각 마늘 품종의 소비 주체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3. 최근의 마늘 수요의 변화 동향

□ 마늘 소비량이 감소하면서도 업무용 소비 비중은 증가

- 마늘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10.6kg에서 2011년 7.7kg으로 연평균 3%씩 감소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마늘을 많이 사용하는 김치 등의 가정 내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마늘 1인당 소비량 추이(연산 기준)



주: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연산은 당해년 5월~익년 4월 기준임.

- 2000년대 들어 마늘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업무용 소비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조사에 의하면, 수요자 유형별 마늘 구입 비중이 소비자가 2005년 75%에서 2010년 67%로 감소한 반면에 김치제조업체, 대형외식업체 등 대량수요처는 같은 기간 25%에서 33%로 증가

표 8. 마늘 구입자 유형별 구입 비중(저장마늘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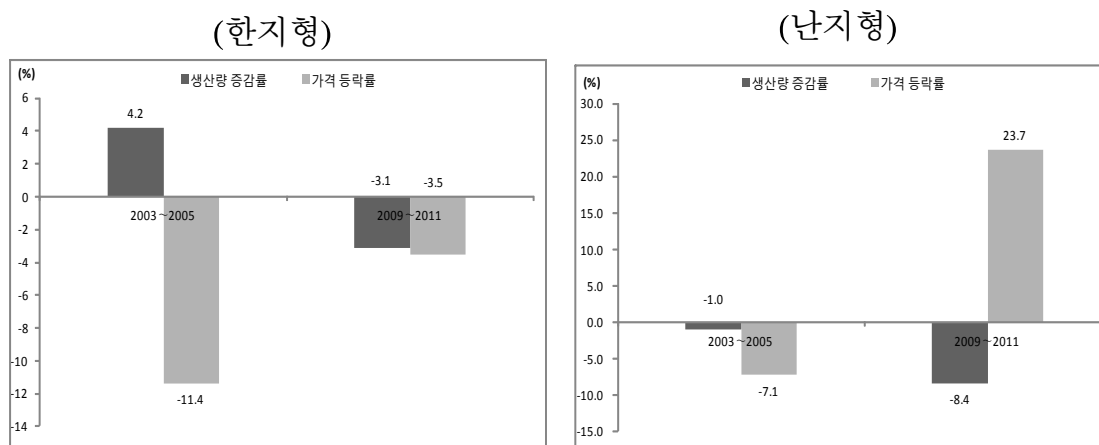
연 산	2005	2010
소비자	75	67
대량수요처	25	3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2006. 2011.

□ 대서종 난지형 마늘에 대한 수요 증가

- 한지형 마늘에 대한 수요는 최근 감소한 반면 난지형 마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의 생산량과 가격을 200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한지형의 경우 2000년대 전반기에 생산량이 평균 4% 증가하면서 가격은 평균 11% 하락하여 한지형 마늘 수요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반기에는 한지형 마늘 생산량이 평균 3% 감소하였으나, 가격도 평균 4% 하락하여 한지형 마늘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난지형 마늘은 2000년대 후반기부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난지형 마늘은 2000년대 전반기에는 생산량이 평균 1% 감소하였으나, 가격도 평균 7% 하락하여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반기에는 생산량이 평균 8% 감소하면서 가격이 평균 24%로 크게 상승하여 수요는 전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국산 마늘 품종별 생산량과 도매가격 증감률(2003~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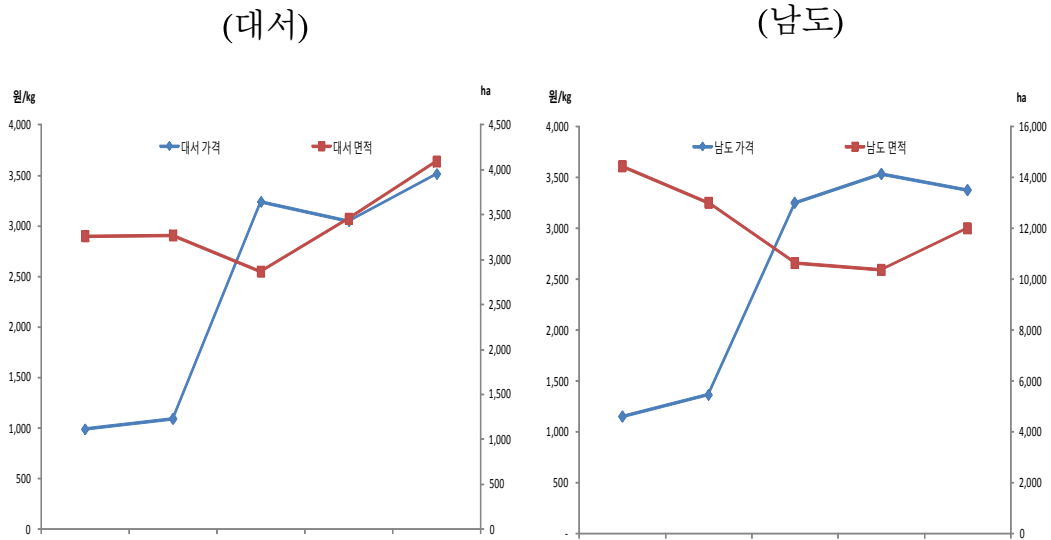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난지형 마늘 중에서도 대서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난지형 마늘을 대서 마늘과 남도 마늘로 구분하여 산지 가격과 재배면적(공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동안에 남도마늘은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는 정체 내지 감소하였으나, 대서마

늘은 재배면적(공급)이 증가하였는데도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대서마늘과 남도마늘의 재배면적과 가격 추이(2008 ~ 2012)



주: 대서 면적은 창녕, 영천, 합천, 남도 면적은 고흥, 신안, 무안, 해남, 제주, 함평을 기준으로 함. 대서와 남도 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실태 자료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최근 마늘 수요 변화는 소비자의 품종별 선호가 바뀌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한지형은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반면 난지형(수입마늘 포함)은 한지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업무용으로 선호
- 난지형에서도 대서종은 기존의 남도종에 비해 수율이 높고 매운 맛이 덜하여 최근 대서종에 대한 선호가 업무용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업무용 수요가 증가하고 맛에 대한 소비자 기호가 달라지면서 난지형(대서종) 마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 공통과제: 생산비 절감과 단위당 수확량 증대

- 마늘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생산비 절감과 단위당 수량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첫째, 마늘의 주아재배를 확대해 나가야 함
 - 주아재배를 통한 우량종구 확보는 단위당 수확량을 늘리고 생산비를 절감시키며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음
 - 일반농가에서 주아재배를 확대하기에는 소득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산지에 주아생산 전문단지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주아 공급시스템을 마련
- 둘째, 마늘 생산의 노력비 절감을 위해 기계화를 확대해야 함
 -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작목반이나 영농조직 단위의 공동작업반을 운영할 필요
 - 논마늘이 밭마늘보다 기계화가 용이하나 해당 지역에 맞는 기계를 개발하여 파종이나 수확작업의 기계 이용률을 높여야 함
 -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최대 주산지인 전남 지역의 기계화 확대가 필요
- 셋째, 수확 후 건조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함
 - 마늘의 자연 건조는 수확 후 기상 변화로 바이러스 등이 발생할 경우 저장성이 떨어짐. 따라서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완전 건조 후에 저장함으로써 저장마늘의 감모율을 낮춰야 함

□ 한지형 마늘: 상품 차별화로 경쟁력 확보

- 한지형은 난지형에 비해 수입의 영향이 미미하여 국산 한지형 마늘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첫째, 마늘 주산지의 지리적 표시제나 각종 인증제 등을 통해 원료를 차별화해야 함
 - 지역별로 맛, 크기, 모양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원료 확보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제고(단양군과 의성군에서는 현재 지리적표시제를 시행 중)
- 둘째, 마늘의 상품화 단계에서 포장, 디자인, 기능성 및 안전성 등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해야 함
 - 독창적인 포장이나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제품 자체의 기능성이나 안전성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
- 셋째,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함
 - 인터넷 전자상거래, 주산지별 마늘 축제나 직거래 장터 등으로 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

□ 난지형 마늘: 대서마늘 재배 비중 늘리고 업무용 수요 대응 강화

- 2011년산 기준으로 대서마늘의 단위당 수확량은 10a당 1,790kg으로 남도마늘(1,450kg)보다 23% 많으나, 생산비는 kg당 1,400원으로 남도마늘(3,620원)보다 61% 낮음

표 9. 대서마늘과 남도마늘의 단위당 수확량 및 생산비(2011년산 기준)

구 분	단위당 수확량(kg/10a)	생산비(원/kg)
남도마늘(A)	1,450	3,620
대서마늘(B)	1,790	1,400
증감률(B/A)(%)	23.4	-61.3

자료: 남도마늘은 남해군, 대서마늘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자료임.

- 난지형 마늘이 중국산 마늘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낮고 수요도 증가하는 대서마늘의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함
 - 중국산 마늘 생산비는 640원/kg으로 국내 남도마늘의 1/5 이하 수준이지만, 국내 대서마늘에 비해서는 1/2 수준

- 그러나 중국산 마늘의 유통비용을 감안할 경우에는 중국산 신선냉장 마늘의 국내 판매가격이 국내산 대서마늘의 도매가격과 비슷
- 마늘에 대한 식품가공업체나 외식업체의 업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강구되어야 함
 - 확대되는 업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장성 제고, 업무용에서 필요로 하는 신선편이 또는 반가공 등의 상품개발, 효율적 거래방식의 강구 등이 필요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물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송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3. 21
발 행 2013. 3. 22
발 행 인 최세균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447-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